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안군수 후보자

환경정책 및 공약 탐구

'자연과 함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진다.

환경! 녹색! 생태! Echo! 는 21c 현재와 미래사회의 최대화두이며,

우리고장 함안, 군민의 삶의 질, 행복한 세상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다.

6.4 지방선거 함안지역 후보자는 올바른 환경보전 정책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하며, 환경문제에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군민과 후손들이 다함께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함안환경보전협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환경정책과 공약 검증으로

- 환경우수 정책 육성
- 환경파괴 정책 선별 -> 후보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환경파괴 위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수한 환경정책 유도와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함안환경보전협회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우수한 환경보전 정책과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며, 당선 후 후보자의 환경정책 실천 여부를 감시, 감독할 것이다.

새누리당 차 정 섭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정책을 펴겠습니다.

▢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환경정책 및 공약 소개

- 개괄 ; 환경 오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인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오염 물질이 많지 않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 땅, 바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환경오염은 환경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태계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환경 훼손도 지난 10여 년 사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이기도 시작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무심코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 쓰레기 소각 등도 우리환경을 오염시키기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함안의 환경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 차정섭 후보의 환경정책 방향 ;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정책을 펴겠습니다.

새누리당 함안군수 공천자 차정섭 후보는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정책을 펴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개발’ 과 ‘보존’ 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적인 입장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개발’ 과 ‘보존’ 을 대립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정섭 후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개발’ 과 ‘보존’ 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차정섭 후보는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을 함안군정의 근간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에서 공식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1) 함안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함안환경보전협회는 1991년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그간 함안 환경보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 활동이 다소간 위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안의 모든 환경파괴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민간 환경 활동가를 다수 양성 또는 지원해, 이들이 환경보전을 적극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염방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환경보전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함안환경보전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개최했던 '남강 야생화 축제'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군민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행사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은 보전활동도 펴야 하지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환경보전협회가 한때 추진했던 환경소년단의 활성화도 검토하겠습니다.

▢ 6.4 지방선거 함안군 환경 현안 질의서

1. 함안군의 산재한 공장들과 앞으로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

함안군에는 경남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2,5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 예를 들어 '나홀로 공장' 들은 자체 정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으로는 환경 감시활동을 원활히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활동가를 양성,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나홀로 공장' 의 입지를 제한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홀로 공장' 의 입지를 제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조례 등의 근거로 제한을 하더라도 상위법의 규정을 들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기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당수의 기업 입지가 이른바 재산 증식을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기업 활동을 하려는지 여부만 판단해도 '나홀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입지 승인이 난 경우에는 환경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활동을 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뜻을 한데 모은다면 '나홀로 공장' 입지 제한을 하는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홀로 공장' 을 이미 조성된 공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원칙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2. 함안의 영산! 여항산의 보전과 폐쇄된 정지병 약수터에 대한 대책?

여항산의 보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여항산은 함안의 진산(鎭山)으로 그 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항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일일 터입니다. 그러나, 이 천혜의 여항산 자락에서 살고 싶은 군민들의 바램을 완전리 배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하되 보수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난개발은 반대합니다만, 마을 정비나, 일정 지역의 새로운 취락지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상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 예를 들어 일전에 시도됐던 경남랜드 개발과 같은 환경파괴식 대규모 개발은 반대합니다.

함안군에는 여항 정지병 약수터와 산인 문둥골 약수터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약수터가 총대장균군 검출에 따라 폐쇄돼 군민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총대장균군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서 기생하는 대장균 및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균을 총칭합니다.

총대장균군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고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소화기계가 병원균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총대장균군이 정지병 약수터에서 검출된 것은 군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폐쇄만이 최상의 정책인지는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정지병 약수터는 여항산에서 삼밭골 옹달샘, 별천약수터 등과 함께 백두대간 낙남정맥의 정기를 담은 약수를 군민에게 선사해주는 일종의 보물과도 같습니니다.

특히, 정지병 약수터는 그 이름의 유래에 서민의 향기가 서려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은 호랑이가 종종 출몰하는 깊은 산골짜기였고, 함안과 진동・여항산에는 오솔길에 주막(酒幕)이 있었는데 이 주막은 술맛이 뛰어나 한 잔을 들이키면 피로가 사라지고 힘이 다시 솟구쳐 길 가던 나그네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런 유서깊은 정지병 약수터에서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검출돼 폐쇄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정섭 후보는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함안환경보전협회 정경윤님은 “정지병 약수터는 주변에 온혈 동물들의 배설물은 간혹 있어도 오염원이 없고 자연 그대로이므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해서 약수터를 폐쇄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천명이 늘 애용하고 있는 곳을 폐쇄하기 전에 그 원인 파악과 정화노력을 하는 것이 순리” 라는 것입니다.

차정섭 후보도 이에 동감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약수터는 하나의 문화 공간이자, 명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오염원을 찾아 이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정화하는 활동을 펴는 방법으로 약수터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3. 자연늪 보전(유전,질날,대평늪)과 사라진 늪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늪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야생화와 어류, 수생식물들이 늪을 바탕으로 서식하거나 생존합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346호인 법수의 대평늪은 함안의 귀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늪으로 일컬어지는 습지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안의 늪이 최근 훼손되거나 공장 등의 신축으로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안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늪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 법수 가야 칠서 등지에는 자연늪이 산재해 있어 이런 자연늪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차정섭 후보는 환경을 살리는 일에 민간 환경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라진 늪들을 되살리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과 상의하다 보면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안의 늪이 대부분 사유지인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군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4. 칠서 폐기물처리장과 칠서공단의 만성적인 환경 민원에 대한 대책?

칠서면 대처리 산 34-6 지역 일원에 2만6000평 규모의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리시설을 조성하려 하면서 칠서면민들은 물론 뜻있는 함안군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칠서)공단을 세우면서 애초에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지를 허가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012년 1월 관계기간 협의를 통해 경남도 고시(제2012-488호)가 변경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전국의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소각하도록 승인된 데 대해 차정섭 후보는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쓰레기 반입입니다.

차정섭 후보는 칠서공단 밖에서 반입되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반대합니다.

경남도가 원안대로 변경고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해 함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경남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함안군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5. 농촌형(비닐하우스,논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근절 대책?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나오는 농촌형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면 단위로 마을기업을 설립 유도해 마을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하겠지만, 제대로 된 수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불법 소각은 근절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농촌생활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수거 대책부터 마련해 농촌형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거나 소각되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6. 법수면 농공단지 내 십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폐주물사 공장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

법수농공단지 내에는 10여 년간 폐주물사 4만t 가량이 적재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1995년 부도가 난 한 공장 업주가 이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데다 이 주물사를 딱히 인수할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 방치 폐기물로 인한 책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함안군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 비용입니다. 대략 추산으로도 60~70억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도로 포장 시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재활용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섭 후보가 군정을 맡으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대책 마련을 세우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습니다.

7. 4대강(생태계 파괴, 녹조, 지하수위등)과 창녕.함안보에 대한 의견?

낙동강에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그 원인 규명에 앞서,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우려되는 바 큽니다.

취수장에 녹조가 많이 유입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녹조대란을 볼 때 이후 매년 여름 녹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서 관측된 남조류 세포수는 20만 개 이상이며, 97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수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낙동강수질관리 민관대책위원회 제안을 관계 기관과 인근 자치단체 등에 제안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소속 김 용 철

첨단녹색도시, 함안시로 나아갑니다!

▢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환경정책 및 공약 소개

김용철 함안군수 예비후보는 환경정책을 별도의 범주(範疇, category)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지난 4월 7일, 〈**첨단녹색도시 함안 비전** 2014〉 정책기자회견에서 김용철 후보가 제시한 '7대 분야 50대 공약' 전체가 환경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단녹색도시, 함안시로 나아갑니다!" 라는 슬로건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김용철 후보에게 환경이란 함안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개념(main concept)이자 군정(郡政)의 철학을 관통하는 화두(agenda)입니다.

김용철 후보는 현재 함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을 무분별한 기업유치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2천 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왔지만, 돈은 돌지 않고 일자리도 안 늘어났습니다. 양극화는 함안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여기에 환경오염과 난개발의 폐해가 겹치면서 함안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불안요소라면, 함안에서는 고용 없는 기업유치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파괴가 불안요소입니다.

‘정책융합(policy mix)’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이를 대입하면, 개발과 환경 보전을 병진(竝進)한다는 것쯤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김용철 후보는 이러한 안이한 발상에 반대합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의 임무가 상반된 요구 사이에 평균값을 내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정책을 재평가하고, 그 성찰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짜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환경정책, 즉 환경파괴를 막는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한 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환경정책, 다시 말해 환경을 가꾸는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성장의 동력을 구태의연한 굴뚝이나 토목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환경이 곧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말할 때 농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함안의 경제활동인구 약 4만5천명 가운데 농민은 14,704명(2011년)으로 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함안의 지역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함안은 전국에서 시설원예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국립 시설원예시험장이 들어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기술집약적 나아가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은 첨단과학의 결정체로서, 연기 한 줄 안 뿜는 녹색의 공장입니다. 시설원예시험장을 토대로 이 녹색의 공장을 유치해야 합니다.

김용철 후보는 장차 함안이 친환경농업의 성지(聖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선 축산분뇨로 퇴비를 만들어 농민에게 반값으로 공급하고, 산업폐기물에서 열원(熱源)을 얻고, 유속(流速) 발전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순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덴마크의 티스테드(Thisted)처럼 못하란 법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함안을 친환경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녹색도시(Green City)’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민의 건강과 노동력을 지키기 위해 함안군 전역에 무인헬기 무상방제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관행농업을 넘어서고자 하는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함안은 전국에서 가장 긴 총연장 338km의 물길을 자랑합니다. 수십만평의 수변 부지를 두 곳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강점인 하천과 둑 그리고 첨단시설원예시범단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합체시키면, 친환경을 선도하는 경관농업(景觀農業)은 꿈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1천만명 가까운 도시인구(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가 있습니다. 함안은 경관농업을 테마로 하는 거대한 자연농원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놀고’, ‘보고’, ‘먹고’, ‘쉬고’, ‘사고’ 이것이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는 함안 서비스산업의 활로입니다.

김용철 후보는 함안지방공사 초대 사장을 역임하며, 지역경제의 실상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기업 유치는 더 이상 함안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땅값이 싼 맛에 밀려들어온 인근 대도시의 하청공장들은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공장이 떠나고 자연이 망가진 땅에 미래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청공업도시는 함안의 길이 아닙니다.

함안의 자원(資源)은 자연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함안은 자립의 근거를 영원히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은 희망의 문제요, 생존의 문제요, 지갑의 문제입니다.

김용철 후보의 **주요 환경관련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헬기 무상방제시스템 구축
○ 친환경퇴비 반값 제공
○ 농가 및 하우스 난방열원(신재생에너지) 무상 공급
○ 수변지구 유속발전기 시범 설치
○ 태양광발전단지 시범 조성
○ 폐기물재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
○ 친환경퇴비공장 설립 및 운영
○ 함안보생태체험공원 조성
○ 아라가야 역사문화 계승·발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국제열기구대회 유치
○ 국제시설원예박람회 개최
○ 여항산 가족휴양타운(가족길) 조성
○ 무료마을버스(CNG 버스) 운행
○ 마을 환경기초시설(오폐수 정화) 확충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법수면)
○ 질날늪 환경개선사업(법수면)
○ 토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대산면·군북면 월촌리)
○ 상습침수지역 대책 마련(대산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함안환경보전협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철 후보는 환경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함안을 대한 민국 환경정책의 살아 있는 교과서로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 6.4 지방선거 함안군 환경 현안 질의서

1. 함안군의 산재한 공장들과 앞으로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

함안의 골칫덩이 중 하나가 난개발입니다. ‘나 홀로’ 공장이나 축사, 하우스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난개발의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토지이용계획이겠으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칠서면, 칠원면, 군북면, 법수면 등지의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장과 함께 살 수는 없다” 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공장이 쏟아내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오폐수,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집진설비, 방음벽, 환경기초시설 등이 공장 단위로 마련돼야 할 것이며, 엄정한 단속과 함께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환경시설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폐기물재활용센터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장이나 각종 오염시설 등의 신규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난개발과 ‘나 홀로’ 공장 난립의 여지를 막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같은 갈등의 요소들은 민관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단지화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농업단지, 축산업단지, 공업단지, 폐기물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지역거점별로 짜임새 있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안은 일찍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첨단과 녹색 그리고 역사를 주제로 함안의 도시구획 청사진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집과 공장의 위태로운 동거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함안은 기업하기 좋은 곳에서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하루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2. 함안의 영산! 여항산의 보전과 폐쇄된 정지병 약수터에 대한 대책?

먼저 전원주택이라는 이름 아래 난립하는 주택 건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여항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난개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항산 자락에 산재한 주거지역을 함안의 영산인 여항산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특색 있는 전원마을로 재편하고, 근린시설은 단지화해야 합니다. 여항산 소류지의 청정 관리는 기본입니다.

김용철 후보는 여항산 가족휴양타운 조성을 여항산 보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림도로와 등산로를 '가족길'이라는 테마로 재단장해, 환경친화적 힐링코스로 만든다는 게 이 구상의 골자입니다. 여항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반대합니다.

정지병 약수터는 2013년 4월, 총대장균, 분원성(糞原性)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병 약수터는 물맛도 좋거니와, 예로부터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른바 '스토리'가 있는 함안의 관광자원인 만큼, 수질 악화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질 개선에 나서, 빠른 시일 내 재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자연늪 보전(유전,질날,대평늪)과 사라진 늪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내륙의 늪과 연안의 갯벌은 한 사회가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지표입니다. 대평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김용철 후보는 이미 질날늪 환경개선사업(법수면)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늪은 있는 그대로 보전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군이 늪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형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늪지대를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왕에 매립해 공장부지가 된 늪을 원상회복시키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환경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 복원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과거에 늪이 살아 있을 때에는 윤내리와 윤외리에서 석무까지 물이 빠지는 데 30일 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3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기에는 침수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지역 일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배수시설이 증설됐으나, 여전히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소하천정비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시급합니다. 이 역시 김용철 후보의 공약으로 제출되었습니다.

4. 칠서 폐기물처리장과 칠서공단의 만성적인 환경 민원에 대한 대책?

문명이 발달할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각종 폐기물에 대한 김용철 후보의 기본철학은 순환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약이 폐기물재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산하에 폐기물재활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관내 공단지역 및 '나 홀로' 공장들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일괄 분류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팰릿으로 만들어 농가 및 하우스에 난방열원으로 무상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논리의 측면에서도 폐기물재활용센터는 확실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장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가와 하우스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칠서공단 환경 민원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삼칠권 주민들의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는 칠서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 접근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함안군 인허가 사항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폐기장 건설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5. 농촌형(비닐하우스,논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근절 대책?

4번 문항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농촌형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의 경우, 생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분뇨를 수거해 원료를 얻는 친환경 퇴비공장과 폐기물재활용센터가 대안입니다.

환경 보전은 인프라 구축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 환경보전협회와 같은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들과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제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보전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법수면 농공단지 내 십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폐주물사 공장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걸림돌은 현재 야적돼 있는 폐주물사가 산업폐기물 관련 법에 의해 산업 원재료로 인정을 받는 개인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군이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수십억원이 드는 처리 예산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폐주물사는 내화벽돌의 원재료나 도로보조기층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 군의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7. 4대강(생태계 파괴, 녹조, 지하수위등)과 창녕.함안보에 대한 의견?

4대강 사업은 시행 전부터 국가적으로 찬반 양론이 나뉘어졌습니다. 국가적 시책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접한 창녕군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평가할 때에는 장단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지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철저한 보상대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변지구가 정비돼, 함안이 함안보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사용수도 풍부해졌습니다.

4대강사업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군수 개인의 찬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